

# 京城便覽

[別乾坤] (1929년 9월호)

京城도 近代都市의 特色을 每日 發揮하여 간다. 形式에 있어서도 그러하거나  
와 裏面生活에 있어서도 더욱 그러하다. 畸形의 發展, 人爲의 淘汰 等 모든  
點에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첫째 京城은 建設의 京城이나,  
破壞의 京城이나, 破壞와 建設의 交響樂에 行進하는 것이 京城의 現實이다.  
建設되는 勢力과 破壞되는 勢力의 相衝은 在來의 모든 形骸 위에다 罪惡의  
金子塔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京城의 象徴이다. 우리는 항상 이 象徴化하는  
特殊한 都市의 空氣를 呼吸할 때마다 어떠한 窒息을 느낀다. 窒息에서 벗어나  
려는 것이 京城人의 叫呼이다.